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7. 2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스위스, 테러단체 PKK 지지자 집결

- 7.23 언론은 스위스 내 튀르키예 공동체가 現 튀르키예 국경을 확정 지은 로잔 조약*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, PKK 지지자들은 同조약을 비난하며 조약이 체결된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

* 1923년 체결된 조약으로 튀르키예는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 등을 수복했으며, PKK측에서는 해당 영토를 쿠르드 국가 설립을 위해 양도받아야 한다고 주장

○ 애플, 영국에서 암호화 메시지 공개거부

- 7.24 언론은 영국 정부가 테러 및 아동 성착취 등의 위협에서의 국민 보호를 위해 보안기능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권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, 애플은 이에 반발하여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국내 메시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

미주

○ 美 언론, '올해가 총기난사 관련 최악의 해가 될 수 있다'고 경고

- 7.24 언론은 미국에서 사상자가 4명 이상인 총기난사 사건이 올해 총 401건 발생해 작년 동기인 365건 대비 9% 이상 증가하였으며,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가 총기난사 관련 최악의 해가 될 수 있다고 보도

※ 특히 올해 7월에만 65건 발생, 81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다쳤다고 부언

아·태평양

○ 韓 국방과학연구소, 화학무기 판별 기술 개발

- 7.25 언론은 국방과학연구소(ADD)가 화학테러 발생시 독극물인 '노비축*' 사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개발, 신종 화학테러 증거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도

* 러시아가 군사용으로 개발한 생화학무기로 노출 시 2분 이내 사망할 수도 있으며, '20년 비행기에서 의식을 잃은 러 정치인에게 同 성분이 발견되어 국제적 관심 증가

중 동

- 이라크 시위대, '꾸란 조각* 규탄'으로 스웨덴 대사관 습격
 - 7.20 이라크에서 꾸란 조각에 분노한 시위대가 주 바그다드 스웨덴 대사관을 습격하고 불을 질렀으며, 이에 스웨덴 정부는 同사건을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
 - * 지난달 28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이슬람 경전 꾸란을 조각한 사건
- 예멘, WFP 직원 총격 피살 대사관 습격
 - 7.22 언론은 내전 중인 예멘 남부 타이즈州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(WFP) 직원이 오토바이를 탄 무장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, 경찰당국은 同人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10여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
 - ※ 예멘內戰은 '14년 촉발된 이후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으며, UN은 同내전을 통해 직·간접적 사망자를 37만 7천명으로 추산
- 쿠웨이트, 암호화폐 관련 '모든 가상자산' 거래 금지
 - 7.22 언론은 쿠웨이트 금융감독기관(CMA)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결제·투자·채굴 등에 대한 금지를 선언했으며, 규정 준수를 위해 「자금세탁방지법」 제15조에 명시된 처벌규정을 강조했다라고 보도
 - ※ 한편, 쿠웨이트 중앙은행과 CMA가 규제하는 증권 및 기타 금융상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부언

아프리카

- 소말리아軍, 연합작전으로 알샤바브 테러리스트 100여명 사살
 - 7.20 언론은 소말리아軍과 美軍이 공중 및 지상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하여 소말리아 중부지역 칼리바와 마을 근처에서 알샤바브 간부 7명을 포함 100여명을 사살했다고 보도
 - ※ 「하산 셰이크 모하무드」 소말리아 대통령은 알샤바브와 전면전을 선포했으며, 그 결과 중부지역의 무장단체들의 활동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

ISIS, 아프간 카불市 시위대 대상 자폭테러

- '16.7.23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市 데마장 광장에서 시아파 하자라族 시위대 수천명이 시위를 하던 중 2차례 폭탄테러가 발생, 최소 80명이 사망하고 260명 부상
 - 하자라族 주민들은 '전력망 설치계획에 하자라족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바미안 지역을 배제했다'고 시위 중이었으며,
 - 이번 테러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시위대 한복판에서 자살폭탄 벨트를 작동시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
- 사건 발생 직후 ISIS는 자체 선전 매체 아마크 통신을 통해 "ISIS 소속 전사 2명이 폭탄벨트를 작동시켰다"며 배후를 자처
- 「가니」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"평화적 시위는 모든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권리"라며 "정부는 그들의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"이라고 발표
- 한편 同 테러는 '01년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수도 카불市에서 벌어진 테러 가운데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

ISIS(이라크·시리아 이슬람국가)

- (목 표) 중동 전역을 아우르는 이슬람국가 건설('13.3 결성)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4. 10), 미국('04. 12), 캐나다('12. 8)
- (조직규모) 약 1.1만~1.8만('23.2, 美 국무부 추정)
- (연계세력) ISIS-호라산·西아프리카·시나이 지부 등 24개 지부
- (활동지역) 이라크 서북부 및 시리아 동부 지역
- (활동수법) 시리아內 점령지 상실('19.3) 이후 잔당이 게릴라식 테러를 지속 중인 가운데, 北아프리카·아프간·동남아 등지로 이동, 재건 모색
- (주요활동) ① '15.11 프랑스 파리 공연장·축구장·카페 등에 동시다발 테러 자행(사상 498)
 ② '16.3 벨기에 브뤼셀 공항·지하철역 동시다발 테러(사상 372)
 ③ '18.7 시리아 스웨이다에서 총기 난사 및 자폭테러(사망 246, 부상 200)